<10.16873/tkl.2020. 86. 12>
한국문학논총 제86집(2020. 12) 113~150쪽

한무숙 문학의 배양(培養)

- 인공 치하 서울의 경험과 부산 피난 시절을 중심으로 -

남 은 혜*

차 례

1. 들어가며
2. 인공 치하 서울에서의 3개월 -해체된 '집'과 가장의 역할
3. 부산 피난 시절 -문학이라는 '창'과 새로운 공동체
4. 나가며

국문초록

한무숙은 한국전쟁기 1951년~1953년 동안 10편 이상의 단편소설을 창작·발표하였다. 그러나 전시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에서도 자신의 경험을 자전적으로 서사화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수필 등에서 태평양전쟁기 가부장제 하의 며느리로서 고통을 겪으며 문학에 대한 열정을 품었던 내면에 대해 반복하여 발화했던 데 비해, 한국전쟁기의 활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노출하지 않았다. 이는 소설의 서사에서 보이는 특징과도 연계될 수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휴전 이후까지를 폭넓게 다루는 작품들의 경우에, 공통적으로 일제강점기의 상처와 고통에 더 집중하고 한국전쟁기의 서사는 단편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 카이스트 강사

현재까지는 한무숙의 전쟁기의 이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본고에서는 작가의 장녀 김영기 교수와 장남 김호기 관장의 회고담을 통해 한무숙의 인공 치하 3개월의 생활과 부산 피난 시절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였다. 그 결과, 작가는 한국전쟁기의 경험을 통해 문학을 매개로 하여 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점을 고찰할 수 있었다.

전쟁 발발 당일 피난을 떠났으나 한강을 건너지 못하고 돌아와 젊은 남성들의 목숨을 지키고 시어른들로부터 어린 5남매에 이르는 대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한무숙은 부역에 참여하지 않고 인공 치하 3개월을 버텨냈다. 이 시기는 남성과 시 어른들 중심으로 유지되어왔던 가부장제 하의 생활에서 한무숙의 영향력과 입지를 높일 수 있게 한 시기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무숙은 1951년 1월 부산으로 피난을 떠났다. 피난 시절 한무숙은 당시 부역 문인들이 경험했던 고통과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리하여 한무숙은 다방에서 문인들과 만나거나 한무숙의 집에 문인들을 비롯한 예술가들이 내방하여 교유하였으며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는 환도 후 한무숙의 자택인 '명륜장'으로 이어진다.

본고에서는, 한무숙이 한국전쟁기 부산 피난 시절에 문인들과 교류하고 작품을 창작하면서 사회와의 접점을 찾을 수 있었고 이는 휴전과 환도 이후 작가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또한 이 시기 작품들에 나타난 주제와 특징이 한무숙 문학 세계의 고유한 지점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이 시기를 문학적 '배양기'로 새롭게 해석하고자 했다.

주제어 : 한국전쟁, 한국전쟁기, 인공 치하 서울의 경험, 부역, 1.4 후퇴, 피난, 부산, 피난문단

1. 들어가며

한무숙은 서울 종로 출생이나 아버지의 근무를 위해 경상도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으며[1] 1936년 부산공립고등여학교를 졸업하였고 한국전쟁기 1951년부터 환도 때까지 부산에서 지내며 부산과 깊은 연을 맺고 있는 작가이다. 어린 시절부터 바라왔던 화가로서의 꿈이 결혼으로 좌절되자 『신시대』 장편소설공모에 응모한 『燈を持つ女』가 1943년에 당선되며 문학의 길에 들어섰고, 단막극 <こころ(心)>(1943), 4막극 ≪서리꽃≫(1944)이 조선연극협회의 희곡 모집에 연이어 당선되었으나 문단에 나서지 못하고 해방 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2] 1986년 『만남』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장편 5편, 중편 3편, 단편 38편과 179편의 수필을 남겼다.

한무숙은 1948년 『역사는 흐른다』가 국제신문 장편소설 모집에 당선되면서[3]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고자 했으나,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한무숙은 한국전쟁기 1951년~1953년 동안 10편 이상의 단편소설을 창작・발표하였다. 한국전쟁기 작가들은 자신의 피난 체험을 바탕으

---

1) 한무숙의 부친 한석명은 22세에 경남 사천 군수로 부임한 청빈 근면한 관료였다고 한다. 이호규, 「연꽃이 아름다운 이유」, 이호규 외, 『한무숙 문학세계』, 새미, 2000, 27면 참고.

2) 1949년 기사에(「교류신인작가축하」, 『경향신문』, 1949.12.17) '최근 문단에 데뷔한 신인 여류작가'로 거명되고 있다. 수필 「鈴蘭꽃 향기가 번지는 앞목에서」에서는 "문단인과 접촉을 하게 된 것은 「역사는 흐른다」를 역시 국제신문 소설모집에 응하고부터"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무숙, 「鈴蘭꽃 향기가 번지는 앞목에서」, 『열길 물 속은 알아도』, 신태양사, 1963.

3) 1948년 국제신보 현상공모 당선작이나 1949년 국제신보가 폐간되자 주필 송지영이 새로 '태양신문(현 한국일보)'을 창립하여 연재하였다. 1948년 백양당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는데 초판 5,000권이 20일안에 매진되었고 1950년과 1956년에 정음사에서 2, 3판이 출판된 후 KBS에서 대하드라마로 방영(1988-1990)되기도 하였다. 김영기, 「한무숙 문학의 번역세계 조명」, 『소설가 한무숙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한무숙의 삶과 문학정신 발표 자료집』, 2018.10, 49; 52면 참고.

로 하여 피난민의 모습을 형상화한 소설을 발표하였고 이러한 작품들은 현장성과 구체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되어 왔다. 황순원의 「곡예사」(1951), 안수길의 「제3인간형」(1952), 손창섭의 「비 오는 날」(1953) 등은 피난지에서의 체험과 전시의 경험을 피난 현지에서 쓰고 전시 지면에 발표한 대표적인 피난민소설로 평가되었다.[4] 그러나 한무숙의 경우에는 전시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에서도 전쟁과 관련된 자전적인 경험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5] 한무숙 작품이 가지는 이러한 특성은 동세대 여성 작가인 임옥인이 자신의 월남 체험을 기반으로 「월남전후」(1956)를 창작하여 주목받았던 것과도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무숙이 한국전쟁기에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는 후기에 쓰인 수필들에서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피난을 가려고 한강에 갔다가 침몰하는 배를 눈 앞에서 보고 집으로 돌아와 석달동안 고생했다고 하는 회고가 가장 구체적인 언급이었으며[6] 이러한 전쟁기의 이력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문예』 전시판에 수록된, 「문단은 다시 움직인다」에는 "괴뢰군 치하에 완전히 지하잠적했던 문인"으로 '모윤숙, 강신재, 임옥인'과 더불어 '한무숙'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7]

---

4) 박덕규, 「6·25 피난 공간의 문화적 의미 : 황순원의 「곡예사」 외 3편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39, 2011, 115면 참고.

5) 이에 대해 박정애는 소설작품 안에서는 '가면 쓰기'에 가장 철저한 작가이면서도 수필작품을 통해서는 자신이 왜 글을 쓰고 어떻게 글을 쓰게 되었는가의 문제를 차분한 고백체로 서술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정애, 「'규수작가'의 타협과 배반」, 『어문학』 93, 2006, 221면 참고.

6) 한무숙, 「<만남>, <역사는 흐른다>의 작가 한무숙 씨」, 『세계 속의 한국 문학(강연·대담집) 한무숙 문학전집 10권』, 을유문화사, 1993, 327면 참고.

7) 1950년 12월호 『문예』는 '전시판(戰時版)'이었다. 「문단은 다시 움직인다」는 제목 아래 당시 문인들의 행방을 소개하고 있다. 그 분류는 철저하게 반공주의에 입각한 것이었다. 분류 항목과 이에 포함된 문인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괴뢰군에게 피랍된 문인'은 김진섭, 홍구범, 이광수, 정지용, 김기림, 김을윤, 공중인, 최영

남은혜의 최근 논문에서는 작가의 장남인 김호기 한무숙문학관장의 회고에 근거하여, 한무숙의 가족이 인공 치하 서울에서 3개월을 지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시기를 어떻게 부역의 혐의 없이 지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규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8] 이 시기의 활동과 관련하여 한무숙이 1950년 7월 31일에 서울에 있었다는 것과,[9] 마찬가지로 숨어 있었던 이웃 김동리와 은밀히 교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수필을 통해 알 수 있다.[10] 비록 작가의 경험과 그에 대한 인식이 작품을 통해

수, 김동환, 박영희, 김억, 이종산, 김성림. '괴뢰군과 함께 자진북행한 자'는 박태원, 이병철, 이용악, 설정식, 김상훈, 정인택, 채정근, 임서하, 김병욱, 송완순, 이시우, 박은용. '괴뢰군과 함께 수도를 침범했던 자'는 이태준, 이원조, 안회남, 김동석, 김사량, 이동규, 임화, 김남천, 오장환, 배호. '북행했다가 귀환한 자'는 박계주, 박영준, 김용호. '부역피의로 수감중에 있는 자'는 홍효민, 전홍준, 노천명, 이인수. '괴뢰군 치하에 완전히 지하 잠복했던 문인'은 박종화, 모윤숙, 오종식, 유치진, 이하윤, 장만영, 김동리, 조연현, 최인옥, 유동준, 김광주, 최태응, 박두진, 강신재, 방기환, 설창수, 임옥인, 한무숙. 특히 '괴뢰군 치하에 완전히 지하 잠복했던 문인'으로 분류된 작가들은 대부분 『문예』의 주요 필진들이었다.
이봉범, 「잡지 『문예』의 성격과 위상」, 『상허학보』 17, 2006; 조남현 지음,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참고.
국립중앙도서관「잡지창간호컬렉션-문예」 https://www.nl.go.kr/NL/contents/N20103000000.do?schM=contView&schIdSub=CO0000232481, 2020.11.20일 확인.

8) 남은혜, 「지속되는 전쟁과 공동체의 문학-황순원, 한무숙의 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0, 14면 참고.

9) 한무숙, 「속옷만 걸치고 계셨던 박용원 박사님」, 『내 마음에 뜬 달 한무숙 문학전집 8권』, 을유문화사, 1992, 263면.

10) 『문예』 전시판에 한무숙과 같이 "괴뢰군 치하에 완전히 지하잠적했던 문인"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김동리는 한무숙의 회고에 의하면 의용군으로 끌려가기까지 했던 것으로 보이나 신분이 발각되지 않았고 이후 부산으로 피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동란이 터졌다. 그는 숨어 있었다. 우리는 이웃에 살고 있었다. 일본말로 방송되는 UN군 방송을 몰래 듣고 거의 날마다 나는 전황을 그에게 알려 주었다. 그는 나를 무척 기다렸다. 그는 내가 전하는 전황으로 일희일비했다. (중략) 그러는 동안 어처구니없게도 그는 인민군 의용군으로 붙들려 갔다. 호주 '김창귀'의 이름으로 아무도 김동리와 '김창귀'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몰랐다. 전국에 수

적극적으로 발화되지는 않았지만 수필 「병상에서」를 통해서 이때의 경험이 한무숙의 삶과 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러나 6.25사변을 계기로 죽음은 나를 배신하고 말았다. 아니 그것은 나의 그러한 어리석음이 너무도 하치 않아 그 본질을 역력하게 명시하였을 따름인지도 모른다. 상징적인 임금(林檎)의 하나의 종자(種子)가 내 혀끝에 닿은 것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그러나 원죄를 실감치 못하는 나는 죽음에의 신앙과 향토를 잃고 공포와 허무와 염오(厭惡)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 거리에 무수히 쓰러져 있던 주검들! 한 시 바삐 처리되어야 할 부란(腐爛)하기 쉬운 추한 물체에 지나지 않는 주검들! 어떠한 비약적인 유미적인 관념으로도 거기에서 나의 신앙이, 그리고 있던 아름다움과 숭고함과 엄숙함을 찾아낼 수는 없었다.
>
> 상실된 향토에 악마가 들어와 앉았다.[11]

인공 치하 3개월 이후의 이력에 대해서는, 한무숙 문학전집에 수록된 작가연보에서 1951년 1월 부산으로 피난하였고 1953년 8월 환도했다는 것이 현재까지 가장 구체적인 정보였다. 한무숙은 부산에서 지내면서 피난지 문인들과 교류하며, 많은 작품을 창작하였지만 창작한 작품 중 다수를 발표하지 않고 전후 발간한 창작집 『월운』(1956), 『감정의 심연』(1957)에 수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종군작가단에서 활동할 상황이 아닌 가정주부였으며 건강마저 좋지 못했던 여러 지점과 관련된다는 점이 논의된 바 있다.[1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무숙 개인에게는 이 시기에 작품을 창작하고 발표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대가족을 돌봐야 하는 며느리였으며,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영향력을 가졌던 남편을

배되어 있는 이 인물은 몸이 약해 쓸모없다는 이유로 풀려나왔다. 한무숙, 「김동리 선생과 나」, 『내 마음에 뜬 달 한무숙 문학전집 8권』, 앞의 책, 267면.

11) 한무숙, 「병상에서」, 『열길 물 속은 알아도』, 앞의 책, 59면.

12) 남은혜, 앞의 글, 14면 참고.

‘내조’해야만 하는 위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작가는 “여류 작가는 흔히 혜성에 비유되었지요. 한번 떴다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등단 직후 유진오 선생님도 나보고 그러시더군요. 계속은 못할 거라구요.”[13] 라고 회고한 바 있다. 집안의 어른들 몰래 글을 써야 했으며 종일 집안일에 지쳐 앉을 기운도 없어 “원고지를 벽에 대어 놓고 모로 누워서 글을” 써 응모한 작품이 장편『역사는 흐른다』였다.[14] 시상식에 아이를 업고 갔더니 당선자가 여성일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주최측의 저지로 제대로 참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15] 여성작가가 처해 있던 당시 환경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무숙이 창작한 작품 하나하나는 일제강점기-해방기-한국전쟁기로 이어지는 역사적 격랑의 시대와, 가부장제하의 억압에 여성작가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회와 문단이라는 중층의 억압을 뚫고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한무숙은 부산 피난 시절 문인들과 교류하고 작품을 발표하면서 사회와의 접점을 찾을 수 있었고 이 시기 작품들에는 ‘과거’와 ‘전통’에 대한 인식, ‘고향’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같은, 작가 특유의 문학세계가[16] 자리하고 있다. 그리하여 휴전과 환도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는 점에서 한무숙의 한국전쟁기 경험에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가는 이에 대해 수필「鈴蘭꽃 향기가 번지는 앞목에서」에서 아래와 같이 회상하였다.

> 육・이오사변은「집」을 해체해 버렸고 그 결과 나는 문학이란 창을 통하여 사회에 連坐하게 된 것 같다. 다방을 안 것도 피난처인 부산에서

13) 한무숙,「나의 문단 40년 회고」,『세계 속의 한국 문학(강연・대담집) 한무숙 문학전집 10권』, 앞의 책, 285-286면.
14) 한무숙,「<만남>, <역사는 흐른다>의 작가 한무숙 씨」, 앞의 글, 326면 참고.
15) 이 일화는 장녀 김영기 선생이 말씀해 주신 것인데, 1940년대 초 현상응모와 관련해서는 가보지도 못했다는 작가의 회고를 참고할 때, 이 때의 시상식은 장편『역사는 흐른다』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16) 이러한 한무숙 문학 세계의 특징에 대해서는 남은혜의 앞의 글 참조.

이고 많은 선배 선생님들과 뜻을 같이 하는 벗들을 가지게도 되었다.[17]

이와 같이 '집'이 해체되었으나 그로 인해 '문학'이라는 창이 열려 사회에 연좌할 수 있게 된 전쟁기에 한무숙은 어떻게 생활하였을까. 본고에서는 한무숙의 장녀 김영기(Young-Key Kim-Renaud, 1941년 출생) 조지워싱턴대학교 명예교수와, 장남 김호기 '한무숙문학관' 관장(1942년 출생)의 회고담을 통해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했다.[18] 이를 다음 장에서 정리하며 그 의미를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2. 인공 치하 서울에서의 3개월 -해체된 '집'과 가장의 역할

기존에 계속되었던 국지적 분규로 인해 서울의 시민들은 6월 25일 당일에는 전쟁의 발발을 실감하지 못하고 피난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19] 그러나 김호기 관장의 회고에 의하면, 한무숙을 비롯한 일가족은 전쟁 발발 당일 피난을 떠났다. 한무숙의 일가는 피난을 떠났지만 군인들이 다리를 지키고 있어 한강을 건너지 못하고 3일 동안 광나루 근처의 공장같은 곳에서 유숙하다가 귀가하였다고 한다. 아래는 작가의 장녀인 김영기 교수의 당시에 대한 회고이다.

---

17) 한무숙, 「鈴蘭꽃 향기가 번지는 앞목에서」, 앞의 글, 82면.

18) 2020년 6월 20일 한무숙 문학관에서 작가 한무숙의 한국전쟁기 삶에 대해 회고담을 들려주신 김호기 관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김영기 선생님은 2020년 10월 24일 Zoom 온라인 회의로 개최된 제14회 소영 박화성 문학페스티벌에 참석하셔서 인사를 나누었고 이후 E-mail을 통해 한무숙 작가의 전쟁기 경험에 대해 문의드렸는데 상세하게 회고해 주셔서 논문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음을 밝힌다. 두 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19)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6, 138면.

> 6.25는 누구도 예상 못했던 전쟁이라 그 당일 모든 식구가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다섯 자녀(딸 둘, 아들 셋)를 두셨는데 만 9세 된 제가 장녀이었고, 제 기억에 동생들은 모두 어른의 등에 업혀 갔고 저만 걸어가다가 그 날 비가 내려 한강 뚝 미끄러운 데를 가다가 저는 신발을 잃어버려 맨발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강 다리에 도착하기 바로 전에 하나 밖에 없던 한강 다리가 폭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눈 앞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싣고 가던 배들이 수없이 가라앉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 아버지는 워낙 운동을 잘 하시고 수영도 잘 하시어 한강을 헤엄쳐 건너실 수 있었는데 차마 우리를 두고 가시지 못하여 우리는 모두 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밑줄 강조, 인용자)

김호기 관장에 의하면 경동중학교 근처에 있었던 당시 돈암동 자택에는 피난을 떠나지 못한 친지가 모여들었고, 장병들의 복귀를 알리는 방송을 하던 짚차가 길에 다녔다고 한다. 피난에서 실패한 후 집에 돌아와 보니 근처의 모든 집이 약탈을 당했으나 그들의 집은 어머니 한무숙의 기지로 유일하게 무사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한무숙은 애드거 앨런 포우의 「도둑맞은 편지」에서 영감을 얻어 피난을 떠나면서 이미 도둑을 맞은 것처럼 집을 어수선하게 해 놓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집을 나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단지 작가의 기지를 보여주는 예일 뿐 아니라 인공치하 3개월 동안을 자급하며 지낼 수 있게 한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피난을 떠나지 못하고 돌아와서 한무숙의 남편과 시동생, 시사촌동생들을 비롯한 젊은 남성들은 집의 천장 아래 공간에 숨어 지냈다. 수시로 낯선 이들이 집에 찾아와 수색하고 탐지하였으나 그 때마다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는 동안 남자어른들은 무사히 숨을 수 있었고 한무숙은 자식들의 누나인 척하며 지냈다고 한다. 한무숙의 아이들은 5남매였으며 시부모와 서모 할머니 이하 대가족의 솔가는 한무숙의 책임이었다. 한무숙은 집에 있던 패물 등을 팔아 먹을 거리를 마련하여 지내는 식으로 인

공 치하 3개월을 버텼다고 하는데 이 시기에 대해 김영기 교수는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회고하였다.

> 그 때 우리 집에는 삼촌과 당숙까지 여러 남성들이 있었는데 모두 숨어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당시 몇 안 되던 은행의 종로 지점장을 하시다가 영업부장으로 계셔 현재 은행장에 맞먹는 주요 직책을 가지셨고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첫 번째 부르주아 반동주의자로 낙인을 찍히셔서 우리 집에는 아무리 빨간 깃발을 걸어놓아도 인민군들이나 다른 열성분자들이 와서 붉은 깃발 달 자격 없다고 북북 찢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숨어 계시리라 짐작을 하고 하루에도 몇 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쳐들어왔고, 찾으면 즉석에서 처형을 할 정도로 인민군들이 총을 휘두르며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숨으셨느냐고요? 그 당시에는 집에 일 년 치 쌀과 장, 장작을 곡간에 두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천장에 올라 가셨는데 폭격이 심하여 우리 집 뒤 창고에 장작을 쌓아 놓았던 곳에 중간에 방같이 만들어 들어가셨다가 그것도 발각이 쉽게 날 것 같아 나중에는 온돌의 골에 간신히들 들어가 옛날 로마시대 카타콤브 시체들 같이 누워 숨으셨습니다. 한 어른에 한 아이가 붙어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다가 문간 벨 소리가 나면 “나가요!” 하며 누가 문을 열러 가는 동안 모두 숨는 데로 빠져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어린 동생 누구도 아버지 어디 계시냐고 하는 질문에 모두 “몰라! 아버지 없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린이들도 위기는 누구보다 잘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코치를 잘 해 주셔서 그랬지만 그래도 ‘아저씨’ 등에 대하여도 아무도 한 번도 실수를 안 했습니다. 인민군들은 다른 어른들이 그렇게 여럿이 우리 집에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지요. 그 당시 우리 집에 있던 진돗개 ‘호백이’는 인민군이 데려갔는데 아마 잡아먹었을 겁니다. 장작도 가져갔을 뿐더러 나중에는 화가 나서인지 땔감으로 가지고 갔는지 책상까지 짜개서 가지고 갔답니다. 식량도 있던 쌀 다 뺏어 갔는데 그들이 오기 전에 어머니가 집의 모든 베개를 비우고 쌀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보다는 덜 굶었을 테지만, 워낙 식구가 많았고 베개의 수가 제한이 되어 얼마 안 되어 우리는 배고픔이 무언지를 뼈저리게 알 수 있었습니다. 시래기를 어떻게 구하여 그 것을 여럿이 찢어 먹었고 개떡이라고 밀가루 빚어 먹었고 그것도 나중에 없어 어떻

게 연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밑줄 강조, 인용자)

어떻게 연명을 했는지 알 수조차 없었던 그 시기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지만 배급을 받지 않고 지낼 수 있었던 덕에 부역의 혐의를 받지 않고 한무숙은 "괴뢰군 치하에 완전히 지하잠적했던 문인"으로 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역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전시와 전후에 이르는 시기 동안 매우 중요한 입지 차이를 만들어 냈다. 피난을 갈 수 없어 국경 밖의 국민으로써 개인의 생존을 도모해야만 했음에도[20] 인공 치하 서울을 떠나는 '피난'에 참여했느냐 여부에 이어 '부역자'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는 당시에 생사마저 가를 수 있는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인공 치하 서울에서 생존했다는 사실만으로 '잔류파'로 불리고 심판과 처벌이 가해졌던 당시 상황에서 피난을 떠나지 못하고 문학가동맹에 참여했던 노천명과 최정희는 부역자로 지목되어 복역해야 했다.[21] 주지하듯이 박완서는 인공 치하 서울에서 피난하지 못하고 부역자가 되어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친지의 죽음까지 목격해야 했던 경험에 대해 자전적 소설『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1995)에서 상세하게 서사화하였다.

그런데 금융가인 남편을 둔 소설가 한무숙이 인공 치하 서울에서 지내면서도 부역의 멍에를 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을까. 이에 대해서도 김영기 교수의 회고에서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원래 병약하시던 어머니는 6.25가 터진 후 얼마 안 되어 맹장염이 걸리셨고 맹장이 터져 복막염이 되어 얼굴이 산송장이 되어, 그 당시 이미

20) 이민영,「전시의 서울과 피난의 (불)가능성」,『현대소설연구』71, 2018, 355면 참고.

21) 이들이 처형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도강파' 동료 문인들이 사형과 장기형에 해당하는 A와 B급 대신 "부역작가-잔류작가를 일괄적으로 D와 E로 평가"한 덕분이라는 고은의 회고를 소개하고 있다. 공임순,「최정희의 해방 전/후와 '부역'의 젠더 정치」,『여성문학연구』46, 2019, 26면.

> 소설가로 알려져 있던 분이 부역을 피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륜동 우리집에서 일을 보아주던 남자 일꾼이 어머니를 업고 아는 박용원 의사님이 계신 동대문 병원까지 모시고 가서 수술을 받고 겨우 목숨을 건지셨지만 그 후유증으로 서울이 탈환될 때까지 누워계셔야 했습니다. 그 핑계로 어머니는 동네에서 매일 모이는 회의에도 못/안 나가시고, 아버지는 피난 가셔서 안 계신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9살 된 제가 우리집 대표로 참석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인민재판, 즉석 처형도 제 어린 나이에 목격하였습니다. (밑줄 강조, 인용자)

이때의 위급했던 수술에 대해서는 작가가 수필로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부역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을 김영기 교수의 회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은 큰 성과라고 하겠다.

> 우리집이 있는 돈암동에서 신당동까지는 무수한 관소(關所)가 있었다. 인민 위원회, 여성 동맹, 청년 동맹, 내무소 등등 성씨가 빌려와서 끌고가는 인력거는 자본주의의 상징이라서 시간은 자꾸만 지체했다. 긴장과 송구스러움으로 아픔을 얼마큼 잊고 있던 나는 그런 상황에서 수술받는 것이 진실로 미안하여 이제 아프지 않다고 굳이 사양했지만 두꺼운 방공 커튼을 첩첩이 치고 검은 천으로 싼 전등 아래서 수술은 시작됐다. 1950년 7월 31일 밤의 일이다.[22]

이 글은 인공 치하 서울에서 김동리와의 인연에 대해 회고한 수필「김동리 선생과 나」와 더불어 작가가 인공 치하 서울에서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유일한 작품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수필의 도입부에서 한무숙은 당시 남편의 행방을 몰랐다고 회상하였다.

> UN군의 폭격은 그날따라 유독 치열했다. 공포에 떨면서 아이들은 엄마 옆으로 다가붙는다. 아홉 살을 맞이로 젖먹이까지 연년생이 아니면

22) 한무숙,「속옷만 걸치고 계셨던 박용원 박사님」, 앞의 글, 263면.

> 한 해 건너 어린것들이 다섯—남편은 어디 가서 숨었는지 며칠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중략) 무서운 폭격은 쉴 새 없이 계속되는데 나는 어린 것들을 품어 안은채 의식이 가물가물해 갔다. 아득히 들리는 아이들 우는 소리와 격심한 통증에 정신이 들자 나는 이를 악물었다. 아빠는 어디 있을까. 그가 돌아올 때까지 나는 살아야 한다, 이 아이들을 위하여.[23]

김영기 교수, 김호기 관장의 회고에서 동일하게 전쟁 발발 당일 피난을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 한무숙의 가족들이 함께 숨어 지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전쟁 발발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인 7월말 잠시 남편이 거처를 옮겼던 것이 아니라면, 위 인용된 부분은 당시 사실과 거리를 두고 각색된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다. 부역자의 멍에를 간신히 피했지만 인공 치하 서울에서 지낸 시간이 초래할 수 있었던 불명예와 억압에 대한 부담이 이러한 지점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무숙의 시부모는 당시 3.8선 이북이었던 경기도 연천에서 지내다가 해방 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월남을 한 이력이 있다. 이에 대해 작가는 "누구할 것 없이 겪어야 했던 월남 가족의 고초가 우리 집안이라고 면해졌었을까"[24]라고 언급하며 '월남 가족'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지금까지 전후문학에 대한 연구에서 월남민으로서 정체성을 지녔던 작가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대부분 남성 작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무숙 본인이나 친정 일가는 남한 출신이지만 그의 남편을 비롯한 일가가 월남의 이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은 작가의 삶과 입지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김영기 교수의 회고에서 언급하였듯이 한무숙의 남편 김진흥은 당시 상당한 위상을 가졌던 금융인이었으므로 한국전쟁기 한무숙과 그의 가족들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처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23) 한무숙, 「속옷만 걸치고 계셨던 박용원 박사님」, 앞의 글, 262면.
24) 「현기」, 『수필집 내 마음에 뜬 달 한무숙 문학전집 8권』, 앞의 책, 362면.

한무숙은 소설에서는 한국전쟁기에 자신의 체험을 자전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특징을 보여주는데 비해 수필과 강연에서는 당시에 대해 언급한 경우가 있다. 아래는 1979년 하와이대학에서 한 강연의 일부로, 전시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점에 대해 가족과 친지조차 믿을 수 없었다는 점을 짚어내고 있다.

> 이렇게 겪은 사람은 잊어버려 가고, 겪지 않았던 사람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6.25 동란은 모든 의미에서 한국과 한국인들을 밑바닥에서부터 뒤흔들어 놓고, 민중은 국토와 더불어 송두리째 황폐화되었던 것입니다. 근대전의 성격의 잔학 비정은 물론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란이 가지고 오는 그 처참한 공포와 미묘한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신—그렇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것은 이 '불신'이었습니다. 어버이는 자식을 못 믿고, 자식은 어버이가 무서웠던 것입니다. 제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저는 언니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수복 후 언니는 제가 무서웠다고 하더군요. 이 불안과 불신은 거의 동물적인 공포였다는 것이 제 체험입니다. 저는 불신이 어떤 무서운 질병보다도, 또 어떤 무서운 무기보다도 인간을 파괴하는 무섭고 무서운 요소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그 앞에서 깊은 공포를 느꼈던 것입니다.[25] (밑줄 강조, 인용자)

이처럼 한무숙의 수필과 자녀들의 회고, 월남민과 부역자에 대한 당시의 상황이라는 여러 텍스트를 입체적으로 고려할 때 작가 한무숙은 소설을 통해 전쟁기의 경험, 특히나 인공 치하 서울에서 생존했던 점에 대해 가능한 한 노출하지 않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와 관련하여 1950년대 소설에서 인공 치하의 서울에 대한 묘사 장면은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한 배경으로만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이데올로기를 우회하거나 침묵하는 작가들의 자기검열이 작동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논의를[26] 참고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생활에 대한 작가의 보다 솔직한 심정

25) 한무숙,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한국 문학(1979년 11월, 하와이 대학에서 한 문학 강연)」, 『세계 속의 한국 문학(강연·대담집) 한무숙 문학전집 10권』, 앞의 책, 17면.

은 1990년대에 들어서야 단편적으로 언급되었다.

- 지금 구상중이신 작품은?

"6.25 때 일어로 써 놓은 <생명의 양단>을 다시 쓸 작정입니다. 그 당시 우리 가족도 남들처럼 피난을 가려고 한강 쪽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배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걸 보니 5남매를 데리고 용기가 안 나서 돌아왔습니다. 당시엔 저 쪽에 대한 환상도 없지 않았죠. 그러나 석 달 동안 고생하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당시 몰래 숨어서 쓴 것이 <생명의 양단>입니다. 삶이란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어떤 극한 상황에선 생명의 양쪽에서 다 태워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데올로기니 하는 문제가 아니고 생활과 밀착한 감정이었죠. 그때는 우리말로 써서는 안 될 것 같아 일어로 썼죠. 이제는 옛날 현실을 비춰보는 객관적 시각과 내 자신의 생활에 여유도 생겼으니 고쳐 놓고 죽어야죠. 산다는 게 이데올로기에 선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쓸 생각입니다."[27] (밑줄 강조, 인용자)

위의 인용은 우영미와의 대담인 「<만남>, <역사는 흐른다>의 작가 한무숙 씨」의 한 부분이다. 남자인 가족들은 존재조차 드러나지 않도록 숨긴 채 대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던 시기이기에 작가는 당연히 작품을 창작하거나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주목되는 점은, 너무나 엄혹하던 시절임에도 당시를 기록하기 위해 외부의 눈을 피해 일본어로 작품을 썼다는 점이다. 이후 다른 대담에서도 이 작품의 주제와 작가의식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28] 그러나 안타깝게도 작품의 실물은 확인되

---

26) 유임하, 「이데올로기의 억압과 공포-반공 텍스트의 기원과 유통, 1950년대 소설의 왜곡」, 『현대소설연구』 25, 2005, 71면 참고.

27) 한무숙, 「<만남>, <역사는 흐른다>의 작가 한무숙 씨」, 앞의 글, 327면.
이 글은 전집에 수록되어 있으나 대담시기가 나와 있지 않은데 본문 내용 중 수필집 『내 마음에 뜬 달』 출간(스포츠 서울, 1990)에 대한 언급이 있어 1990년 자료로 추측할 수 있다.

28) 작품 <생명의 양단>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람이 보통 태어난다는 것은 자기가 태울 것을 가지고 나오는 연소의 탄생이에요. 낳자마자 생명의 선에 불을 지

지 않았다. 이에 대한 김영기 교수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 '생명의 양단'에 대하여는 제가 아주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저는 부산 피난 중 남북 양쪽을 비판하는 내용이라 다 써 놓은 원고를 한 당숙의 압력으로 파괴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의 분단문학에 대하여 강연[29]하시면서 거기에 대하여 언급하시며, 인제는 한국이 변하여 마음 놓고 발표할 때가 되었으나 또 시대가 바뀌었으니 그 소설도 좀 다른 식으로 쓰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공 치하 서울에서 이목을 피하기 위해 일본어로 창작했다는 점이 놀랍고 남북 양쪽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 작품에 대한 관심이 더해지지만 작가는 이에 대한 개작을 준비 중이라는 점만 밝힌 채 작품 발표에는 이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30] 그런데 한무숙이 이에 대해 "옛날 현실을 비춰보는 객관적 시각과 내 자신의 생활에 여유도 생겼으니" 고쳐 써야겠다고 한 것은 작품을 발표할 만한 현실의 정세가 바뀌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작가의 체험이 작품이 되

펴 끝까지 타는 연소의 과정이지요. 그런데 이 6.25 동족 상잔 같은 극한 상황에서는 생명을 양쪽에서 태웁니다. 이 소설은 195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그런 생명의 양단을 그려 갈 예정입니다. 한무숙, 「나의 문단 40년 회고」, 앞의 글, 286면 참고.

29) 1987년 L.A 한국문화원에서 발간된 『한국문화(Korean Culture)』라는 잡지에 「Korean Literature in the Era of National Division」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고 한다.

30) 이에 대해 김호기 관장은 어머니가 보여주었던 '사전 조사 노트'에 대해 언급하며 '생명의 양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처절했던 6.25의 역사를 다루는 소설이다. 생과 사의 기로에 서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의 인간 심리와 세상의 흐름을 다룬다. 작가는 그럴 때 사람이 순간순간을 산다는 것이 순간순간을 죽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절감하여 책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다고 설명했다.
> 김호기, 「한무숙의 생애와 문학」, 영인문학관 강연, 2012.10.27.

기 위해서는 “여과와 정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작가의식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31]

그러나 엄혹하기 이를 데 없었던 이 인공 치하 3개월의 시기는 남성과 어른들 중심으로 유지되어왔던 가부장제 하의 가족 생활에서 한무숙의 영향력과 입지를 높일 수 있게 한 시기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결혼 후 한무숙은 시댁에서 어른들을 모시고 5남매를 키웠고, 일제강점기 말기였던 1940년대 현상모집에 응모한 작품들이 당선되었어도 시상식에 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는 점을 앞에서 논의하였다. 수필 「鈴蘭꽃 향기가 번지는 앞목에서」에는 한국 전쟁 이전까지 문단이나 사회에 나설 수 없었던 작가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 아기를 낳고, 몇 해나 앓으셨다는 시모님의 병구환을 한 끝에 상제가 되고—이러는 동안 책은 멀리 멀리 있었다. 뒤에 두고 온 바다보다도 하늘보다도 멀리 있었다. 그러나 산골에 영란꽃이 피고 산딸기가 영글게 될 때면 가슴 한 구석에 아픔이 번졌다. (중략) 그러는 어느날 젊은 어머니는 우연히 휴지조각을 읽었다. 장편소설 모집광고가 나와 있었다.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다. 쓰고 싶었다. (중략) 식구들이 잠든 심야 등잔불을 돋구어 써 내려갔던 것이다. 가슴에 맺혔던 시름들을 풀어 갔던 것이다. (중략) 써 내려가는 그 자체가 위안이 되었고 즐거움이 되었다. (중략) 스물 네 살 가을, 제목은 「등불 드는 여인」, 천사백매였었다고 기억한다.

---

31) ‘생텍쥐페리’는 “내가 모르는 일, 내가 하지 않았던 일은 한 줄도 쓰기 싫다.”고 하고, ‘릴케’는 “한 행의 시를 쓰려면 백 개의 도시를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작가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체험입니다. (중략) 어떤 사람은 몸소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쓸 수 없다 하여 무궤도(無軌道)한 일을 하려고도 한다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꿈을 그리려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산세(山勢)를 보려면 산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사건의 실지의 주인공은 그 사건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체험은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여과(濾過)와 정리는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밑줄 강조, 인용자)
한무숙, 「작가와 등장인물」, 『세계 속의 한국 문학(강연 · 대담집) 한무숙 문학전집 10권』, 앞의 책, 109쪽.

> 처녀작이 당선이 되었지만 문단을 몰랐다. 고독하게 책만 읽던 소녀는 한 사람의 문단인도 사귀지를 못했다. 아니 알려고 하기에는 환경이 너무나 무거웠다. 시집에는 당선이 된 사실조차 알리지를 않았다. (중략) 그것 이외에는 발표할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또 응모를 하곤 하여 두 편의 희곡이 당선되었다. 문단인과 접촉을 하게 된 것은 「역사는 흐른다」를 역시 국제신문 소설모집에 응하고부터이다.
>
> 육·이오사변은 <집>을 해체해 버렸고 그 결과 나는 문학이란 창을 통하여 사회에 連坐하게 된 것 같다. 다방을 안 것도 피난처인 부산에서이고 많은 선배 선생님들과 뜻을 같이 하는 벗들을 가지게도 되었다.[32]

해방 후 응모한 『역사는 흐른다』가 국제신문 장편소설 모집에 당선되면서 문단과 사회의 관심을 받았지만 "몰래 글을 쓰고 있"던 한무숙은 문단에 나서 다른 문인들과 교류에 나설 형편은 여전히 아니었다.[33]

> **김** 선생님께 등단하시던 8·15 전후에는 최정희 선생님, 김말봉 선생님, 장덕조 선생님, 또 <문장>에 "봉선화"로 데뷔하신 임옥인 선생님 등이 여류로 활약하시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문단 교류는 어떠하셨는지요.

---

32) 한무숙, 「鈴蘭꽃 향기가 번지는 앞목에서」, 앞의 글, 81~82면.

33) 나는 '김동리 씨'에게 원한이 있었다. 만나 본 일도 없고 또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역겨워하고 있었다. 1949년—동란이 나기 전해 일이다. 어느 날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노발대발하셨다.

"얘! 얌전하게 살림이나 살고 있으면 이런 봉변을 할 까닭이 없잖니……. 공연히 규중 부인이 남의 입에 오르내리고 뭐냐. 또 글을 썼다만 봐라." (중략) <문예>지였다. 층층 시하, 대가족 속에서 숨을 죽이며 살던 나로서는 처음 보는 책이었다. 나는 깡그리 무식했다. 그런 문예지가 있다는 것도 김동리 선생의 문학적 업적과 문단적 지위가 어떠한가도 감감 모르고 있었다.

어머니가 접어 두신 데는 작품 월평의 페이지였다. 서너 사람의 좌담 형식의 합평인데 김동리 씨, 곽종원 씨만이 기억에 남는다. 나는 몰래 글을 쓰고 있었다. 어른들이 아실세라, 남편이나 시동생들이 눈치챌세라, 심야에 일어나 누운 채 글을 썼다. 문학 소녀 시절이 없었던 나는 글을 쓰려는 생각도 없이 외국의 문학 작품들을 탐독하면서 국내 작품을 몰랐다. 낯선 이름들이 내 작품을 가지고 말을 주고 받고 있었다. 한무숙, 「김동리 선생과 나」, 앞의 글, 265면.

한 문단에는 선생님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 때 심사 위원이 유진오, 최재서 씨인 것만 기억해요. 희곡은 이서구, 김동석 씨가 심사를 맡았구요. <역사는 흐른다> 출판 기념회에서 비로소 조연현, 홍효민, 최정희 씨를 만났어요. 그 때 김동리 씨도 나오신 모양인데 몰랐어요. 홍효민 씨가 출판 기념회에서 양반 계급에 속하지 않고는 그릴 수 없는 진짜 양반 사회를 그렸다 해서 칭찬이 대단했어요. (중략) 그 후에 하루는 모윤숙 선생님이 오라고 그러세요. 두 번째 뵙는건데 막내를 업고 갔어요. 포대기를 둘러서. 모 선생님이 나와 보시더니 에이, 답답아. 새끼가 자랑이더냐? 딱하다구 하셨지요. 지금까지 문단에서는 특별히 좋은 사람도 없고 특별히 나쁜 사람도 없어요.[34]

이처럼 작가는『역사는 흐른다』가 당선되면서 문단 사람들과 알게 되었지만[35] '집'을 해체해 버린 6.25를 겪으면서 오히려 문학이라는 창을 통해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시집 가기 전 "섬 바디"인 줄 알았는데 "시집을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노바디"[36]였다고 한탄했던 한무숙은 몇 대에 이르는 대가족을 인공 치하 서울에서 생존케 한 위인이었다고 밖에 할 수 없겠다. 가족 중 젊은 남성들의 생존을 가능케 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도 부역자가 되지 않았던 한무숙의 인공 치하 3개월의 시간은 끝이 나고, 이후 부산으로 피난을 떠난다.

3. 부산 피난 시절-문학이라는 '창'과 새로운 공동체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51년 1월, 트럭을 타고 한무숙의 일가는 부산으로 피난을 떠났다. 이는 1.4 후퇴를 기준으로 한 '2차 피난'에 해당한

34) 대담자: 김옥섭. 한무숙,「나의 문단 40년 회고」, 앞의 글, 280면.
35) 한무숙,「어리석고 못난 인간 본성을 추구하며」,『수필집 내 마음에 뜬 달 한무숙 문학전집 8권』, 앞의 책, 59면 참고.
36) 한무숙,「나의 문단 40년 회고」, 앞의 글, 282면.

다.[37] 전쟁 발발 직후의 1차 피난과 달리, 두 번째 대규모의 피난은 북진하던 유엔군에 대해 중공군이 개입해 남진을 하게 된 그 해 10월부터 일어났으며, 중공군과 북한군에 서울이 재함락된 1월 4일을 기준으로 1.4 후퇴라 칭해진다. 1차 피난이 9.28 수복 때까지 대체로 수 개월 정도에 그친 데 비해 2차 피난은 규모도 크고 형태도 보다 계획적이었으며 기간도 장기적이었다.[38] 서울 수복 후 피난을 '안' 간 것과 '못' 간 것의 차이는 빨갱이나 부역자 혹은 반역자의 표지로 작용할 정도로 피난은 이데올로기의 선택과 동일시되었지만[39] 2차 피난기 피난민에 대한 통제가 더욱 엄격하였기 때문에 부산으로 내려오는 것은 1차 피난기보다 더욱 힘들었다고 한다.[40]

당시 한무숙의 가족들은 트럭을 타고 부산까지 피난을 떠났다고 하는데 그 트럭을 누가 준비해 준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무숙의 친정부모와 오빠가 당시 부산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남편 쪽 친지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이 주선을 해 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차량을 얻어 타고 갔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일사후퇴 때 트럭에 실려 간 생각은 나는데 누가 준비한 것인지는 모릅니다. 외삼촌이 피난가는 데는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식구 뿐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탔던 생각만 납니다. 트럭에서 떨어져 죽을 수도

37) 전쟁발발과 함께 시작된 피난을 '1차 피난'이라하고, 중국군 참전으로 인해 이북과 서울·경기·충청지역 주민의 대규모 피난을 '2차 피난'이라 한다. 피난민의 수는 1차 피난 당시 약 150만 명, 2차 피난기에 약 48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만일, 「한국전쟁 초기 민사정책 – 부산의 피난민 통제 및 구호 그리고 경제복구」, 『石堂論叢』 72, 2018, 271면 참고.

38) 이때의 피난은 6.25 발발 당시 대책 없이 이루어진 피난 때와는 달리 일반인 대다수가 통치 주체의 교체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감행한 '생존을 위한 피난'이라 설명된다. 김동춘, 앞의 책, 173쪽, 박덕규, 앞의 글, 114면 재인용.

39) 이순욱, 「한국전쟁기 문단 재편과 피난문단」, 『동남어문논집』 제24집, 2007, 177면 참고.

40) 서만일, 앞의 글, 279면 참고.

있었는데 그것도 기적 같습니다.

인용된 김영기 선생의 회고를 참고하면, 한무숙의 가족들이 부산까지 피난을 가는 길도 당시 대부분의 피난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험난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무숙의 피난길 경험에 대해서는 그의 소설에 주요하게 등장하는, 피난민의 죄책감이라는 모티프와 관련될 수 있어서[41] 이에 대한 이야기를 김영기 교수에게 더 요청하였다.

> 전쟁 직전에 저희 조부모님은 저희와 살고 계시지 않고 제 백부(큰아버지)와 같이 사셨습니다. 제 생각에 어렴풋이 증조할머니도 거기 사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부산에서 다 같이 모이게 되었는데 증조할머니가 피난을 못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걸어 피난을 시작하였고 제 생각에 노인이 거동이 불편하시니 같이 모시고 피난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본인이 막무가내로 같이 안 가시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부님은 댁이 서대문 적십자병원 바로 뒤에 있어 거기는 폭격을 안 할 거라고 피난 안 가시고 댁에 그냥 계셨는데 일사후퇴 전에 미국 비행기 폭격을 맞아 제 두 사촌 여동생들과 함께 즉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라도, 가족 누구를 두고 왔어도 공동 죄의식은 있었을 가능성이 풍부합니다. 그 때 제 작은 고모님이 매일 "할머니!"하면서 통곡하시던 생각이 납니다.

이 시기의 경험에 대해 작가는 수필 「죽음」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는데 일가에 임했던 피해가 막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6.25 동란으로 가족 중에서 열세 명의 희생자를 내면서도 남은 목숨

41) 한무숙의 「파편」(1951), 「아버지」(1951)에서 부모를 두고 피난을 떠나는 젊은 세대의 죄책감을 서사화하고 「대열 속에서」(1961)는 피난을 함께 가지 못한 죄책감을 4.19 현장에서 해소하는 서사를 담고 있다는 점을 남은혜의 논문에서 논의한 바 있다. 남은혜, 앞의 글 참조.

> 을 위하여 서둘러 피난길을 떠났던 모진 마음과 그 목숨들을 이어가기 바빠 억울하게 간 사람들을 어느덧 잊고 있었던 무정함을 뉘우친 것은 어느 만큼의 안정을 얻은 후였으니, 장차 내가 떠난 후도 내가 차지했던 공간 역시 이내 메워질 것이 아니겠는가.[42]

이렇게 1.4 후퇴에 맞춰 피난을 떠났던 한무숙의 가족은 1953년 환도[43] 때까지 부산에서 지냈다. 당시 상공은행의 중역이었던 남편 김진흥에게[44] 집이 배당되어 그들은 토성동에서 지냈다고 한다. 당시 피난민들이 기거할 곳이 없어 고통을 겪었던 것을 상기하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집이 있었던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1.4 후퇴 당시 부산에서 생활한 피난민은 대략 70여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40여만 명의 상존 인구도 살기 어려운 전시 상황에서 한 때 100만이 넘는 인구가 붐볐으며 피난민 가운데 부산시에서 마련한 수용소에 들어간 사람은 7만 명 안팎에 지나지 않아 60여만 명은 자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45] 황순원의 「곡예사」(1951)에 생생하게 그려져 있듯이 당시 부산에 유입된 피난민들이 안정적인 거처를 구하지 못하고 떠돌아야 했던 것처럼 한무숙의 대가족도 한동안은 정착하지 못하고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 큰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우리 아버지가 대가족의 가장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부산 피난 때 처음에는 학교도, 풀 한 포기 없는 진흙의 산에

---

42) 한무숙, 「죽음」, 『수필집 내 마음에 뜬 달 한무숙 문학전집 8권』, 앞의 책, 259면.
43) 이 시기 자택은 명륜동에 있었으며, 현재 '한무숙 문학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호기 선생은 환도 후 근처 문리대, 법대생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문을 열고 식사를 제공했다는 것을 회고하였다.
44) 상호은행이 상공은행으로 새롭게 발족되었다는 기사가 확인되며(「상공은행으로 상호은행신발족」, 『동아일보』, 1950.6.4) 경향신문 인사 기사란(1953.8.14)에 "한국상공은행 취체역업무부장"으로 김진흥의 이름을 찾을 수 있다.
45) 이상원, 「소설에 나타난 피난지 부산의 다방-장소성 고찰을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제31집, 2011, 144면 참고.

> 서 비오는 날 미꾸라지 잡으며 피난 학교를 다니었으나 곧 아버지의 직업과 특수한 가정환경으로 집 없는 생활은 한 적이 없습니다. 첫째, 그 당시 부산에 두 친척이 큰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외삼촌이었는데 그 분은 서울에서 유명한 변호사였는데 부산에 별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국을 걱정하여 이미 내려가 계셨습니다. 또 한 분은 우리 외할아버지의 비공식 '양자'로 일제강점기에 동래 군수를 하신 외할아버지가 한국인을 많이 구제하셨는데 그런 분 중의 하나로 우리 가족에게 일생 은혜를 못 잊고 충성과 애정을 보인 '점애아버지'가 어업으로 대부호가 되어 방이 수없이 많은 집에 사셨는데 그 중 (아마 행랑채) 한 둘을 우리 식구가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짐이 될 수는 없어 이사를 갔는데 마침 우리 아버지 은행에서 어떤 창고를 간막이를 하여 우리 식구가 지위에 상관없이 은행원들의 가족이 모여 사는 데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악마구리같은 데서 가난, 공포, 불안에다가 인간의 협소하고 이기적인 데가 보이는 제일 아래에 내려가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밑줄 강조, 인용자)

위의 인용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한 거처가 토성동 집으로 보인다. 김호기 관장은 당시 가족과 친지들뿐 아니라 수위 가족과 운전수 가족들과도 공간을 나눠 한 집에서 지내며 어려움이 많았다고 회고하였다. 조부, 서모 할머니를 비롯한 어른들로부터 한무숙 작가의 5남매에 이르는 몇 대의 가족들 수십 명이 방 세 칸에서 나눠 지냈다고 한다. 한무숙의 수필 「용기」에는 "워낙에 식구가 많아 은행에서 마련해 준 방을 두 개나 배당받으면서도 모자라 창고에서 기거해야 할 만큼 궁하게 살았"[46]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호기 관장은 낯선 부산에서 지내면서 문화 충격을 받은 일도 많았다고 한다. 어마어마한 피난민들의 유입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부산 사람들과 피난민과의 대립과 불화도 한무숙의 소설 「파편」(1951), 「심노인」(1953)에 섬세하게 포착되어 있기도 하다.

---

46) 한무숙, 「용기」, 『수필집 내 마음에 뜬 달 한무숙 문학전집 8권』, 앞의 책, 356면.

그러나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인공 치하 서울에서 가장으로 식구들의 생명을 지켜내면서 작품을 쓰고 발표하기 어려웠던 한무숙이 피난지 부산에서 지내면서 “문학이란 창을 통하여 사회에 連坐하게” 되었고 “다방을 안 것도 피난처인 부산에서이고 많은 선배 선생님들과 뜻을 같이 하는 벗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1948년에 창작하였던 「정의사」를 『문예』 1950년 6월 호에 발표하며 작가로서의 활동을 이어가고자 했던 한무숙은 전쟁이 발발하며 1950년에는 더 이상 작품을 발표하지 못한다. 그러나 부산으로 피난을 떠난 이후, 1951년 창작한 「김일등병」[47]을 필두로 전쟁기간 동안 총 14편의 단편소설(이중 8편에서 한국전쟁을 서사화)을 남겼다.

당시 전시문단의 중심을 이루었던 『문예』에[48] 국한하여 살펴보더라도 1951년 창작한 「아버지」를 1952년 1월호에, 후에 창작집 『감정이 있는 심연』에 ‘집념’으로 개제하여 수록한 작품을 「노인」이라는 제목으로 1953년 6월호에 발표하였고 10월호에는 수필 「애상」이 수록되어 있다.[49] 이처럼 피난 생활이 작가 한무숙에게는 문학의 배양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새롭게 논의할 수 있다. 또한 부산에서의 피난 시절 동안, 노천명이나 최정희 등의 부역 문인들이 경험했던 고통과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점도 이후의 문단과 사회 활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경험을 통해 문학을 매개로 하여 사회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작가의 고백은 전후 1956년, 1957년 연달아 발간

47) 1951년 4월 5일이라는 부기가 달려 있다.

48) 대다수의 잡지들이 정기적으로 발행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총 6호 발간되며 순문예지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은 문예가 유일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신영덕, 『전쟁과 소설』, 역락, 2007; 김준현, 「한국전쟁기 문인들의 전쟁인식과 문예지」, 『한국근대문학연구』, 2013; 나보령, 「피난지 부산에서 창간된 문예지 신조 해제」, 『근대서지』 19, 2019 참조, 이민영, 「한국전쟁기 문예지 ≪문예≫와 냉전 지리학의 구성」, 『한국근대문학연구』 21, 2020, 272-273면 참고.

49) 이 작품은 피난 시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지향했던 작가의 내면을 보여주는 짧은 수필인데 지금까지는 미확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창작집 『월운』(1956), 『감정이 있는 심연』(1957)의 존재로도 방증된다.

당시 피난수도 부산으로 유입된 문학인들은 피난문단을 형성하여 다방에서 소일하며 문총 행사나 창작 활동에 전념하거나 종군작가단에서 활동하는 양상을 띠었다.[50] 대가족의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 여념이 없었을 한무숙이지만 그래도 문단과의 통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생인 한말숙의 글에는 부산 피난 시절 문인들이 모이는 광복동 '금강다방'[51]에 한무숙이 혼자 가지 못하여 자신을 데리고 다녔고 그 때 김동리와 인연을 맺고 등단하게 되었다는 사연이 소개되어 있다.[52]

부산의 다방 중에서 전국문화단체총연합 사무실 위층에 자리했던 광복동의 '밀다원'이 문인들의 아지트로 가장 유명했고, 그 후 '금강 다방', '춘추', '녹원', '스타', '청구' 등으로 갈라지고 옮겨갔다고 한다. 조연현, 황순원, 오영수, 김동리, 허윤석, 박용구, 김말봉, 손소희, 박종환 등의 문인이 금강 다방의 단골이라고 쓴 기록이 있으며 오상순도 금강 다방의 주요 멤버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 김동리(「김동리 선생과 나」), 김말봉(「불씨」, 「아아 김말봉 선생」), 오상순(「늘 고맙다시던 공초선생」)과의 교류가 한무숙의 수필에 직접 기록되어 있다.

부산 피난 시절, 문화계의 중심은 경제적 안정을 누리는 부산출신 문인이든지, 정계나 재계, 군과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며, 김말봉, 오영수, 한무숙, 김종문, 임긍재, 김광섭 등이 그들이었다고 회고된

50) 이순욱의 연구에 따르면 부산 지역에 머물렀던 토박이 문인과 유입 문인은 문헌자료를 통해 볼 때 약 100명에 이르며, 80여명을 헤아리는 유입 문인들은 대부분 1·4후퇴를 전후로 부산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순욱, 앞의 글, 182면 참고.

51) 금강 다방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중구 창선동 1가 5번지이다. 부산역사문화대전 '금강 다방' 참고. 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contents_id=GC04205220

52) 한말숙, 「따뜻했던 문단」, 『1950년대, 사랑할 때와 헤어질 때』, 솔과학, 2008 참고.

바 있다.[53] 이러한 자료들을 참고하면 한무숙은 다방에서 문인들과 만나거나 한무숙의 집에 문인들이 내방하여 교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호기 관장은 당시 어머니와 교류하였던 문인들로 조연현, 서정주, 황순원, 조병화, 박화성, 김말봉, 모윤숙 등의 문인들을 거론하였고, 화가 천경자도 자주 놀러왔었다는 점을 회상하였다.[54] 아래는 김영기 교수의 회상담이다.

> 그 와중에도 제가 알기에는 어머니는 작가들과 예술인들과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합니다만 그 때였는지 휴전 직후이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 판때기에 사슴과 달을 그려 어머니에게 선사하신 김환기 화백의 조그만 그림은 어머니가 제게 결혼 선물로 주신 저희 집의 보배입니다. 휴전 후에는 소위 '명륜장'이 된 우리 집에서 한국에서 이렇다한 작가, 예술가들과 그 지망생 대학생들이 저희 집을 정규적으로 오셨습니다. 황순원 선생님도 그 아드님 황동규 선생님처럼 자주는 안 오셨어도 오신 분들 중의 하나이시고 어머니와 황순원 작가님 두 분이 서로 참 친하셨습니다. (밑줄 강조, 인용자)

이처럼 부산 피난지 토성동의 한무숙의 자택에서의 문인들을 비롯한 문화계 인사들은 교류를 이어나갔고 이는 환도 후 '명륜장'으로 이어지고 확장되었다.[55] 김진흥과 한무숙의 서울 명륜동집은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모여드는 것으로 유명한 사교계의 중심으로 인식되었고,[56] 서울특별시가 실시한 '외국관광객 한국가정방문'이 이루어질 정도였으며[57]

---

53) 최하림, 「문단이면사 일화로 엮어본 문인들의 작품과 생애 42 부산 피난 시절」, 『경향신문』, 1983.11.26.

54) 천경자는 한국전쟁 부산피난시절 한무숙과 만난 후 장편소설 『역사는 흐른다』의 재판본(1956)의 표지화를 그려주었다고 한다. 「한 편의 소설, 한무숙문학관」, 서울 아트 가이드(김달진 미술 연구소). https://www.daljin.com/?WS=31&BC=cv&DNO=14443

55) 이소영, 「문화 냉전과 도착적 젠더-한무숙과 박순녀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59, 2020.

56) 「올해申사임당賞 韓戊淑씨」, 『경향신문』, 1973.5.11.

PEN의 회원으로 외국의 작가들과 긴밀히 교류해 온 한무숙의 활동과 어우러져 방한한 외국 작가들이 한무숙 자택을 방문하며 한국식 가정을 경험하였던 것은 그의 생애 후반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58]

이순욱의 연구에 따르면, 전시 부산에서 개최된 문총 주최의 문화 행사 '作家修業(金末峰, 孫素熙, 韓戊淑)'에 한무숙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강연은 지역의 문학지망생들이나 지역민들의 문학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59] 손소희는 남편 김동리와 함께 행동하였을 것이고, 부산에 연고를 두고 있어 "괴뢰군 침공 당시 남하했던 문인"[60]으로 설명되었던 김말봉과 더불어 인공 치하 3개월을 잠적하여 지냈던 한무숙이 나란히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괴뢰군 치하에 완전히 지하 잠복했던 문인"으로 분류된 작가들이 대부분 『문예』의 주요 필진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61]

해방 전부터 문단에서 활발하게 교류를 이어온 것도 아니고, 종군작가단에 참여한 것도 아니며, 학연이나 다른 어떤 유형의 네트워크를 통해[62] 다른 문인들과 이어지지 않았던 한무숙은 부산 피난지의 자택에서 문인들의 내방을 통해 문인들과의 네트워크를 독자적인 방식으로 만들

57) 「미국작가 '스튜아트' 씨」, 『동아일보』, 1963.1.25.
58) 장김치, 편육, 족편, 가지선, 선산적 등으로 차려낸 순서울식 상차림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문학가들 사이에서도 명성이 자자하다. 「여류작가 韓戊淑씨 34년동안 정통美國式 고집 빵·야채·달걀 등 규모있게」, 『경향신문』, 1992.3.26.
59) 이순욱, 앞의 글, 187면 참고.
60) 『문예』, 1950.12.
61) 이봉범, 「잡지 『문예』의 성격과 위상」, 『상허학보』 17, 2006; 조남현 지음,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참고.
국립중앙도서관 「잡지창간호컬렉션-문예」 https://www.nl.go.kr/NL/contents/N20103000000.do?schM=contView&schIdSub=CO0000232481, 2020.11.20일 확인.
62) 이소영의 논문에서는 한무숙과 박순녀가 여성 문인들의 학연 중심의 종적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나름의 네트워크를 통해 문단에 (재)등장했던 행위주체라고 논의하고 있다. 앞의 글, 111면 참고.

어 갔다고 할 수 있다. 작가 한무숙의 이러한 특성이 기존에 한무숙에 대한 '규수작가'라는 키워드에 영향을 주었다고도 할 수 있겠다. '규수작가' 한무숙은 "빈틈없이 부지런한 주부이며 작가"라는 평가를 받았고 '신사임당상'의 수상자(1973)이기도 한 것이다.[63] 그러나 본고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어렵고 은행 중역인 남편을 '내조'하며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도외시할 수 없었던 한무숙의 상황에서 자신의 자택을 문인들의 교류의 장으로 열어 네트워크를 만들어갔다는 점이,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가정 밖의 사회로 진출하기 어려웠던 한무숙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열어갈 수 있었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64]

당시 생활에 대해 한무숙은 수필 「<그림소녀>의 獨白이」에서 다음과

63) 박정애, 앞의 글 참고.

64) 1960년대에 이르면 한무숙은 문단의 중진으로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민중서관에서 한국문학의 총결산으로서 춘원이래 (「<한국문학전집>을 간행 민중서관서 11월부터」, 『경향신문』, 1958.10.17)근대문학작가들의 작품을 수록한 "한국문학전집"의 기획을 소개하는 기사에 한무숙의 작품이 수록될 것이라는 점에서 작가의 작품이 공히 정전의 포함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한무숙은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임하고 있다. 한무숙은 '경향신문' 발간 취소에 항의하는 문인 30인 명단에 포함되거나(『동아일보』, 1959.5.8), 1962년 일본 문예지의 초청으로 일본문단과 교류하고 돌아오거나(「일본은 한국을 너무 모르고 있었다」, 『경향신문』, 1963.12.23), 초대신문윤리위원으로 활동하였다(「윤리위원 개편」, 『경향신문』, 1962.4.6). 1965년에는 여류문인들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며 여류공통의 과제를 연구하기위한 문학단체 '한국여류문학인회'의 발기인으로 강신재, 김남조, 김후란, 모윤숙, 박경리, 박화성, 손소희, 이영희, 임옥인, 전숙희, 조경희, 최정희, 한말숙, 홍윤숙과 더불어 참여하였고(「한국여류문학인회 8일 창립총회」, 『동아일보』, 1965.9.2), 유고슬라비아에서 열리는 국제 펜·클럽 대회에 가져가기 위해 『감정이 있는 심연』을 영역하기도 하였다(「출판기념회」, 『동아일보』, 1965.6.17). 남은혜, 앞의 글, 15면 참고.

한무숙은 PEN을 중심으로 한 외국 문학과의 교류뿐 아니라 초대 한일문화협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한일간의 국교가 수립되기 전부터 NHK와 여러 대학의 초청을 받아 강연을 하였다고 한다(김호기, 앞의 강연 참조). 이러한 활동 이력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같이 회고하고 있다.

> 피난처인 부산에서는 많은 선배동지들과 가까이 사귀게도 되었다. 아이들이 다섯, 너즈레한 가사, 거기다가 수년래 건강이 좋지 못하다. 문학활동이란 어쩌다 끄트머리만 보이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빙산이 海面下에 더욱 거대하게 자리를 잡고 있듯이 문학은 내 자신의 바탕 밑에 어쩔 수 없이 크게 무겁게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65]

"문학활동이란 어쩌다 끄트머리만 보이는데 불과"하다고 겸양의 표현을 했으나 전쟁기 동안 14편의 작품을 창작한 것에서 작가의 문학에 대한 열정이 드러난다. 그러나 한무숙은 전시 문인들과 교류는 했으나 대가족을 챙겨야 하는 가정주부로 살았기 때문에 피난 문단의 중심에 서 있지는 않았다. 또한 앞서 짚은 것처럼 전쟁기 자신의 체험을 자전적으로 서사화하거나 수필에 담아내지 않았다. 김양선의 연구에서는 한국전쟁기 작가들이 체험기, 종군기, 수필 등 작가의 체험에 기반한 증언문학으로서 사상적 입지점 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바 있다.[66] 이러한 활동이 반공주의에 입각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무숙의 당시 작품이 가지는 독특성이 확인된다.

임시수도였던 부산은 전국 문총 본부가 들어선 피난문단의 중심으로 한국전쟁기 한국문학은 부산문학이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67] 그러나 당시 문단의 중심에 있었던 남성/구세대 작가들이나 종군작가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작가들에[68] 비해 전시에

---

65) 「<그림소녀>의 獨白이」, 앞의 글.

66) 김양선, 「반공주의의 전략적 수용과 여성문단-한국전쟁기 여성문학 장을 중심으로」, 『어문학』 101, 2008, 338면.

67) 이순욱, 앞의 글, 175면 참고.

68) 여성작가로 종군작가단에서 활동한 문인은, 최정희(공군종군작가단), 장덕조(육군종군작가단), 손소희(해군종군작가단), 윤금숙(해군종군작가단), 전숙희(공군종군작가단)이다(신영덕, 『한국전쟁과 종군작가』, 국학자료원, 2002, 50면 참고). 한무숙과 출생연도가 같고 비슷한 시기 데뷔한 윤금숙은 종군작가단으로 활동

창작된 한무숙의 작품들은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문단 중심의 문학이 처했던 국가주의와 반공주의의 자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과 연계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 적극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전쟁기 한무숙의 작품은 당시 문단의 중심에 있거나 종군작가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여성 작가들과는 다르게 반공주의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와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69] 이는 인공 치하 서울에서 일본어로 몰래 창작했다고 하는 '생명의 양단'에 대해 "이데올로기니 하는 문제가 아니고 생활과 밀착한 감정"[70]을 담고 있다고 한 작가의 설명을 통해서도 방증된다.

전시 상황을 서사화한 「김일등병」(1951), 「파편」(1951), 「아버지」(1951), 「모닥불」(1953), 「심노인」(1953)은 전쟁으로 자리를 떠나온 사람들의 고통이 노년과 젊은 세대에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포착하거나, 보편적인 고통에 묶이지 않는 개별존재의 미시적인 서사를 그려낸다.[71] 한무숙의 전쟁기 소설 중 두드러지는 것은 피난민들의 고달픈 일상을 구체적으로 서사화하면서도 국민/가족/피난민 등의 집단적인 호명으로 일원화되지 않는 개인적인 내면을 포착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한무숙은 인습과 구조적 모순에 희생당하는 보다 실제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의 고통당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냈다는 점에서[72] 반공문학으로 표상되는 당시의 주된 경향과 거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작가 본인이 그랬던 것처럼 1.4 후퇴와 함께 이루어진 2차 피난민들의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한편으로 소설 「파편」은, '파편'이 되어 흩어진 가족과 공동체가 피난지에서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관계 맺음으로 나아가는 특징을 보여준다

하며 반공이데올로기를 강하게 드러냈다.

69) 남은혜, 앞의 글, 16면 참고.

70) 한무숙, 「<만남>, <역사는 흐른다>의 작가 한무숙 씨」, 앞의 글, 327면.

71) 남은혜, 앞의 글, 104면 참고.

72) 위의 글, 16면 참고.

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성은 1950년대 소설에서 과거/현재가 평화로운 이상향/황폐한 세계로 재구성되는 특징을 보여준다는 연구를 관련지어 참고할 수 있다. 이러한 과거와 현재에 대한 대비항 설정이 반공이데올로기로 인해 만들어진 선악의 자명한 전제에 순응하고 내면화된 상태로 해석된다는 것을 참고할 때,[73] 가족조차 깨진 파편화된 현실에서 피난지 이웃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맞이하는 한무숙의 「파편」이 그려내는 문학적 구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보다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지만 가족을 잃은 소녀에게 새롭게 당도한 거리의 공동체를 보여주는 「모닥불」이나 피난지는 아니지만 전시 상황을 배경으로 한 「소년 상인」(1951) 등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다.[74]

또한 한무숙이 당시 창작한 작품들은 부산을 배경으로 한 일상이 세밀하게 포착되어 있고 부산의 곳곳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1950년대 전쟁기 연구에서는 서울 문인들의 눈으로 본 부산과 대구의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당시 작품들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지명이나 배경보다는 부산, 혹은 대구로 뭉뚱그려서 그려져 있다고 지적되었다.[75] 한무숙의 「모닥불」은 거리에서 사는 아이들을 서사화하며 광복동 거리에서의 일화를 그려내고, 「파편」에는 국제시장 근처 산동네의 피난민들의 생활이 구체적으로 포착되어 있다. 「군복」은 유년 시절의 추억을 좇아 초량, 영주동, 대신동 등지의 기억을 찾아가는 인물이 등장한다. 「심노인」은 부둣가 근처에서 피난 생활을 이어가는 가족의 이야기를 그렸다. 한무숙이 당시 취재형 작가가 아니었음에도[76] 2차 피난민들을 다루는 이

---

73) 유임하, 앞의 글, 72면 참고.

74) 한무숙의 '과거'에 대한 인식과 '공동체'에 대한 문학적 구상의 특징과 가치에 대한 연구는 남은혜의 앞의 글 참조.

75) 최애순, 「1950년대 전쟁기 부산·대구의 피난지 문화」, 『국제어문』 제78집, 2018, 95면 참고.

76) 작품 활동 후반기에는 취재와 사전 조사에 열의를 가지고 작품 창작에 임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 한무숙은 가부장제하의 가정주부로서의

소설에서 그들의 삶을 핍진하게 그려내면서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서사에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무숙이 거주했다고 하는 토성동은 문인들과 교류하던 금강 다방이 있던 광복동과도 가깝지만, 당시 가난한 피난민들의 삶의 중심을 이루었던 국제시장과 그를 둘러싼 판잣촌들이 밀집해 있던 지역들과도[77] 근거리에 있었다. 대식구의 생활을 직접 챙겨야했던 한무숙은 종군작가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상을 살면서 피난민들의 삶에 대해 관찰하고 취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무숙의 「파편」에는 겨울 추위와 비를 막을 수 없는 창고와 같은 곳에서 지내는 피난민들의 생활에 대한 묘사, 물을 길러 가는 어려움과 부산 주민과의 마찰, 어렵게 꾸려가는 행상 거리를 압수당한 데 대한 분개 등 피난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던 다양한 요소가 포착되어 있다. 이는 대가족을 이끌고 삶을 꾸려가기 위해 부산 곳곳을 생활인으로 누볐을 한무숙의 삶의 특징과 이데올로기보다 삶과 밀착한 감정을 중시했던 작가의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한무숙의 작품은 피난민들의 고달픈 일상을 구체적으로 서사화하면서도 국민/가족/피난민 등의 집단적인 호명으로 일원화되지 않는 존재를 포착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입지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1957년 발표된 「감정이 있는 심연」을 창작할 때의 상황에 대해 기록한 수필이다.

> 외계와는 접촉이 없어 외롭게 살았던 나는 직접적인 경험이 너무 적었고 독서를 통한 간접적인 경험만이 풍부했었다. 그래서 내 시선은 자연 내부로 향해졌고 사람의 심리를 파헤치는 데에 관심이 쏠렸다. <감정이 있는 심연>은 그래서 쓰여진 것이다.
>
> 한무숙, 「어리석고 못난 본성을 추구하며」, 앞의 글, 59면.

77) 당시 피난민들은 판잣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야기되었다. 피난민들이 짓는 판잣집은 국제시장을 중심으로 한 용두산, 복병산, 대청동, 부두를 배경으로 한 부두주변, 영주동, 초량동, 수정동, 범일동, 영도 바닷가 주변인 태평동, 보수천을 중심으로 한 보수공원과 충무동 해안가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한다. 차철욱, 류지석, 손은하, 「한국전쟁 피난민들의 부산 이주와 생활공간」, 『민족문화논총』 45, 2010, 259면 참고.

4. 나가며

한무숙은 한국전쟁기 1951년~1953년 동안 10편 이상의 단편소설을 창작・발표하였다. 그러나 전시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에서도 자신의 경험을 자전적으로 서사화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수필에서 태평양전쟁기 가부장제 하의 며느리로서 고통을 겪으며 문학에 대한 열정을 품었던 내면에 대해 반복하여 발화했던 데 비해, 한국전쟁기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노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는 소설의 서사에서 보이는 특징과도 연계될 수 있다. 한무숙의 소설에서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휴전 이후까지를 폭넓게 다루는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일제강점기의 상처와 고통에 보다 더 집중하고 한국전쟁기의 서사는 단편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작가 한무숙에게 외부와의 통로가 단절되었던 결혼 초기의 고통을 가중시켰던 태평양전쟁기에 비해 한국전쟁기는 작가로서의 삶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 시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78]

그러나 한무숙이 수필에 드러나는 단편적인 언급 외에, 현재까지는 전쟁기의 이력이 구체적으로 연구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본고에서는 작가의 장녀 김영기 교수와 장남 김호기 관장의 회고담을 통해 한무숙의 인공 치하 3개월의 생활과 부산 피난 시절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한무숙은 부산 피난 시절 문인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활발하게 작품을 창작하면서 사회와의 접점을 찾을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시기를 거쳐 휴전과 환도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또한 이 시기 작품들에 나타난 주제와 특징이 한무숙 문학 세계의 고유한 지점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이 시기를 문학적 '배양기'로 새롭게 해석하고자 했다.

시부모가 해방 후 월남하였고 당시 금융인으로 상당한 지위를 가졌던

78) 남은혜, 앞의 글, 15면 참고.

남편의 존재로 한무숙의 일가는 전쟁 발발 당일 피난을 떠났으나 한강을 건너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다. 이후 집에 숨어 있는 젊은 남성들의 목숨을 지키고 시부모와 서모 할머니 이하 어린 5남매에 이르는 대가족의 생계를 지키는 것이 한무숙의 책임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복막염 수술의 회복 기간 동안 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부역을 피할 수 있어 "괴뢰군 치하에 완전히 지하잠적했던 문인"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

1948년『역사는 흐른다』가 국제신문 장편소설 모집에 당선되면서 문단과 사회의 관심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몰래 글을 쓰고 있던 한무숙에게, 엄혹하기 이를 데 없었던 이 인공 치하 3개월의 시기는 남성과 어른들 중심으로 유지되어왔던 가부장제 하의 생활에서 한무숙의 영향력과 입지를 높일 수 있게 한 시기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무숙 일가는 1951년 1월, 트럭을 타고 부산으로 피난을 떠났다. 피난 시절 한무숙은 당시 부역 문인들이 경험했던 고통과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리하여 부산에서 생활하면서 한무숙은 다방에서 문인들과 만나거나 한무숙의 집에 문인들이 내방하여 교유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는 환도 후 '명륜장'으로 이어진다. 이는 지연, 학연 등의 요소와는 다른 독자적인 방식으로 문인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간 것이며 한무숙이 1960년대 이후 다양하고 본격적인 외부 활동을 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요구된다 하겠다.

한국전쟁기의 경험을 통해 문학을 매개로 하여 사회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작가의 고백은 전후 1956년, 1957년 연달아 발간한 창작집『월운』(1956),『감정이 있는 심연』(1957)의 존재로도 방증된다. '파편'이 되어 흩어진 가족과 공동체가 피난지에서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관계 맺음으로 나아가는 한편으로, 피난민들의 고달픈 일상을 구체적으로 서사화하면서도 국민/가족/피난민 등의 집단적인 호명으로 일원화되지 않는 존재를 포착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한무숙의 전후문학이 가지는 의의와 의미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에서 이어 논의하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1. 기본 텍스트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무숙, 『열길 물 속은 알아도』, 신태양사, 1963.
한무숙, 『한무숙 문학전집』 1권-10권, 을유문화사, 1992-1993.

2. 참고 논저

공임순, 「최정희의 해방전/후와 '부역'의 젠더 정치」, 『여성문학연구』 46, 2019, 7-37면.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6.
김영기, 「한무숙 문학의 번역세계 조명」, 『소설가 한무숙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한무숙의 삶과 문학정신 발표 자료집』, 2018.10.
김양선, 「반공주의의 전략적 수용과 여성문단-한국전쟁기 여성문학 장을 중심으로」, 『어문학』 101, 2008, 333-357면.
남은혜, 「지속되는 전쟁과 공동체의 문학-황순원, 한무숙의 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0.2.
서만일, 「한국전쟁 초기 민사정책 - 부산의 피난민 통제 및 구호 그리고 경제복구」, 『石堂論叢』 72, 2018, 267-297면.
신영덕, 『한국전쟁과 종군작가』, 국학자료원, 2002.
박덕규, 「6·25 피난 공간의 문화적 의미 : 황순원의 「곡예사」 외 3편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39, 2011, 106-132면.
박정애, 「'규수작가'의 타협과 배반」, 『어문학』 93, 2006, 471-498면.
유임하, 「이데올로기의 억압과 공포-반공 텍스트의 기원과 유통, 1950년대 소설의 왜곡」, 『현대소설연구』 25, 2005, 55-75면.

이민영, 「전시의 서울과 피난의 (불)가능성」, 『현대소설연구』 71, 2018, 353-386면.
이민영, 「한국전쟁기 문예지 ≪문예≫와 냉전 지리학의 구성」, 『한국근대문학연구』 21, 2020, 271-307면.
이상원, 「소설에 나타난 피난지 부산의 다방-장소성 고찰을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제31집, 2011, 129-150면.
이소영, 「문화 냉전과 도착적 젠더-한무숙과 박순녀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59, 2020, 107-153면.
이순욱, 「한국전쟁기 문단 재편과 피난문단」, 『동남어문논집』 제24집, 2007, 451-474면.
이호규, 「연꽃이 아름다운 이유」, 이호규 외, 『한무숙 문학세계』, 새미, 2000.
최애순, 「1950년대 전쟁기 부산·대구의 피난지 문화」, 『국제어문』 제78집, 2018, 93-128면.
한말숙, 「따뜻했던 문단」, 『1950년대, 사랑할 때와 헤어질 때』, 솔과학, 2008.

<Abstract>

The 'cultivation period' of Hahn Moo-Sook's literature
- Focusing on the experience for ninety days in communist occupation of Seoul and Busan's refuge period -

Nam, Eun-Hye*

Hahn Moo-Sook published more than 10 short stories during the Korean War. But even in works set in the war, she did not write autobiographical novels or essays in the form of confession. The essays published after the war also did not reveal the experience of the Korean War in detail. This can also be associat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a novel. Hahn Moo-Sook's novel focuses more on Japanese colonial era's wounds and reveals fragmentary experiences during the Korean War.

The activities of Hahn Moo-Sook during the Korean War have not been studied in detail. The author's eldest daughter Young-Key Kim-Renaud and eldest son Hoagy Kim recalled their experiences during the Korean War. This study introduced and studied the story. Hahn Moo-Sook then confirmed that she spent three months in Seoul and spent her time in refuge in Busan. As a result, Hahn Moo-Sook discussed the fact that her experience during the Korean War allowed her to advance literature into society through channels.

---

* KAIST.

Han's family fled on the day of the war, but had to return without crossing the Han River. Hahn Moo-Sook had to protect the lives of young men from the People's Army, and to take care of the livelihood of a large family of generations. Hahn Moo-Sook was able to avoid participate in the 'Collaboration' due to the aftereffects of surgery. Through this period, Hahn Moo-Sook was able to make a difference in her previous position, which was influenced by the patriarchal system.

Hahn Moo-Sook fled to Busan in January 1951. During the evacuation, Hahn Moo-Sook met with fellow writers at a coffee shop or visited Hahn Moo-Sook's house to interact with them. Such a network leads to a network of 'myongryunjang' after the war.

In this study, Hahn Moo-Sook noted that her experience during the Korean War allowed her to participate in literary activities and move on to society. Thus, it was intended to be interpreted as the 'cultivation period' of Hahn Moo-Sook's literature, given that she was able to be active in earnest after the 1960s.

Key Words : Korean War, Korean War period, the experience for ninety days in communist occupation of Seoul 1950, Collaboration, January - Fourth Retreat, Refuge, Busan, Refuge literary circles.

▌논문접수 : 2020년 11월 20일
▌심사완료 : 2020년 12월 13일
▌게재확정 : 2020년 12월 14일